

비행 청소년의 성에 대한 경험, 태도, 지식에 관한 연구*

이영숙** · 심미정*** · 황란희****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 *광주보건대학 · ****광주여자대학교

〈목 차〉

I. 서론	V. 결론 및 제언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Abstract
IV. 고찰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국내외적으로 청소년 범죄율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IMF 이후 사회경제적 문제로 이혼·별거 등 문제가정이 급증하여 문제가가 양산되었다. 또한 핵가족의 급증과 더불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과보호와 과보호로 청소년들은 절제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청소년범죄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1년도 소년범죄는 1997년도에 비하

여 15.9%가 감소하였으나, 전체범죄는 14.6%가 증가하였다(청소년 백서, 2002).

청소년의 일탈된 행위와 범죄는 양적으로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날로 흉폭화, 조직화, 연소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와 약물사범이 우리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어 심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이경희와 박청자, 2000). 이는 사회의 급격한 구조적 변화와 외래문화의 범람으로 성도덕이 문란해졌고, 행동규범도 혼란을 초래하여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함으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비행은 성관련 범죄와 중독적인 양상을 보이며(장순복 등, 2001), 청소년의 건강위해 행위는 흡연, 음주, 약물남용, 성

* 본 연구는 2003년도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발전기금 지원에 의한 연구임

교신저자: 이영숙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전화번호: 062-220-4344, E-mail: yslee@jnu.ac.kr

행위 등 사회규범에서 일탈된 행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Jessor, 1984). 최근에는 일부 특정한 청소년 집단에 국한되었던 폭력과 학교 내의 따돌림 현상이 일반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성과 관련된 문제도 같이 발생되고 있다(청소년 보호위원회, 2001).

청소년의 성경험 시기가 빨라지고 성교경험이 증가하면서 성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청소년들은 피임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 원치 않은 임신이 증가하고, 그 결과 인공유산의 빈도가 증가되고 있다(박영주 등, 1998). Mackey(2000)는 성경험을 조기에 할수록 성건강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미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는 인간의 생식 건강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증진 차원에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성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 보호교육기관에서는 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은 진로개척에 필요한 학력 취득 및 직업기술 지도를 통하여 재 비행의 악순환을 예방하는 교육과 재활동으로 심성훈련·상담지도·정서지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 청소년의 성범죄율이 일본의 3배가 넘으며(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이들에 대한 성교육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수행되어 온 청소년 성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들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남녀 고등학생(이경희와 박청자, 2000), 중·고등학교 십대 여학생(장순복 등, 2001), 대학 1학년 남녀학생(남명희, 1999) 등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이고, 성폭력 상담소, 아우성, YMCA 및 가족보건복지협회 등과 같은 기관 및 단체에서 성

상담을 의뢰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기초적 조사 내용을 보고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미 청소년 범죄에 노출되어 보호 감찰교육기관에 재소중인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성과 관련된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지 보고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보호 감찰교육기관의 재소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기 전 그들이 경험한 성관련 문제들을 포함한 성 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이 어느 정도의 성지식을 가졌으며, 어떤 성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두었다.

2.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비행

비행의 개념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의 여러 가지 규범을 위반한 행위, 법률적인 면에서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 도덕적인 면에서는 도덕적으로 규범을 어긴 행위, 교육적인 면에서는 교육기관의 규칙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박성수, 1991). 이렇듯 비행이란 다양한 각도에서 일정한 잣대에 비추어 일탈되어 자신과 타인의 안녕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청소년 비행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범죄소년, 촉범소년, 우범소년의 비행을 말한다(청소년 백서, 1998).

최근 5년간 소년범죄 유형을 분석하면 1997년도에는 1993년도에 비해 48.4%가 증가하여

전체 범죄 증가율(21.8%)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1년도에는 1997년도에 비하여 15.9%가 감소하였고 전체범죄는 14.6%가 증가하였다(청소년 백서, 2002). 연령별 현황으로는 15세 이하의 범죄소년은 1993년에 23.1%이던 것이 1997년에는 28.6%로 5.5% 높아졌다가 2001년 21.2%로 7.4%가 낮아진 반면, 18~19세의 범죄소년은 1993년에 43.2%에서 1997년에 33.9%로 낮아졌다가 다시 2001년에는 45.5%로 11.6% 높아졌다. 특히 살인·강도·강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1993년도에는 그 점유율이 1.8%이었으나 1997년도 2.4%, 2001년에는 2.5%로 크게 증가하였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중학생의 성폭행 실태조사(김상원과 이명숙, 2000)에서 보면 여학생의 38.5%, 남학생의 16.6%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이들이 당한 성폭행내용은 야한 이야기(34.3%), 전화/통신의 음란메시지(23.6%), 몸더듬기(11.3%), 성기노출(2.5%) 및 강간(2.1%) 등이었다. 그리고 피해장소는 주로 학원과 골목길이 가장 많은 점(42.0%)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가해자는 여학생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다(73.3%). 성폭행 피해를 당한 시기는 중학교 2학년·3학년·1학년 기간이 가장 많고(64.6%), 초등학교이전(4.9%)과 초등학교 저학년(3.9%)은 매우 적고 초등학교 고학년은 약간 많은 성향이 있다(18.6%). 시기는 중학교 2학년·3학년·1학년 기간이 가장 많고(64.6%), 초등학교이전(4.9%)과 초등학교 저학년(3.9%)은 매우 적고 초등학교 고학년은 약간 많은 성향이 있다(18.6%). 또한 경찰청통계에 의하면 성폭력 가해자 중에 40%-70%가 청소년에 의한 것이며 이중 30%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집계되고

있다(홍강의, 1996).

우리 나라의 현행제도는 비행 청소년들을 위해 소년일시보호소(분류심사원), 소년원 및 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현지은, 1999). 그러나 이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적응하도록 교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그 효과에서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제도적 차원의 예산지원이나 전문인력의 확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개발이 미흡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성경험

우리 나라의 퇴폐적·향락적 성문화는 10대 청소년의 성 일탈행동을 부추기고 있고, 가족 형태, 남녀의 역할, 이성관계 및 인간관계, 청소년 탈선, 성범죄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찬 등(1999)이 조사한 청소년기 여성의 성경험 실태를 연도별로 보면 1998년 여중생은 0.2%, 여고생은 2.8%에서 5.2%로 증가하였으며, 성교 경험자의 연령은 15세 25.3%, 16세 26.3%, 17세 12.6%로 나타나 신체적인 발달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정신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에 조기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순복 등(2000)의 십대 여학생의 성 행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성교제를 48.1%, 성 경험을 4.5%, 낙태 경험을 0.4%, 성병 경험을 0.8%, 피임 경험율은 3.4%로 나타났다. 이무식 등(2000)의 일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남학생의 성 경험은 13.5%, 여학생은 4.3%이었고, 인문계 학생은 8.6%, 실업계 여학생 2.3%, 실업계 공학학교

21.3%로 남녀, 학교특성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청소년의 조기 성경험과 성경험 증가양상은 사회적 영향과 신체 변화의 속도가 성적 성숙보다 빠른 청소년기의 특성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성적 특성을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받아들이도록 안내할 필요성과 아울러 신체의 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갖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매체에 의해 넘쳐 나고 있는 그릇된 성문화에 대해 올바른 비판력을 길러 주도록 하고 올바른 성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성 지식과 태도 및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3) 성태도와 성지식

인간의 성태도는 사회구조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관념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가 상호역동적으로 관계하여 성적인 욕구를 분출하면서 표현되어진다(심희정, 1999). 이윤선과 이근후(1987)는 청소년기 또는 그 이전에 습득된 성지식에 따라 성태도가 주로 결정되며, 바로 이러한 태도는 그 당시의 인격적 요소에는 물론 결혼전 성관념 및 결혼 후 성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보아 청소년기의 인격 발달과정에 긍정적인 성태도 형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가치관은 새로운 현대 문화가 유입되면서 문화적 충돌현상으로 청소년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성비행 실태를 조사한 연구보고서(차은석, 1998; 최순희, 1990)에서 각종 무분별한 그리고 충동

적인 성탈선 행위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집단이 가지고 있는 성의 가치관 혼란과 성문란의 보편성 또는 성의 범죄화 경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성지식은 청소년의 성적 충동의 조절과 건강한 성가치관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지식 습득원은 또래 집단, 친구, 잡지, 대중매체, 인터넷과 같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거나 바람직한 성가치관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남명희, 1999). 성지식은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성태도에서는 남학생이 생리적 내용에서 더 긍정적인 반면, 여학생은 성의 발달에 따른 규범적 행위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정, 1990). 또한 성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성행위나 성에 대해 언급하여도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았다(이인규, 1984).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성관념을 확립시키고 나아가서는 성에 대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인으로써 책임 있는 태도를 갖도록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주어 개개인의 성태도, 인식, 가치관을 올바르게 갖게 해야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G시에 소재하며 비행청소년을 교육하는 국가기관인 K정보산업학교에 입학한 전교생 224명(남자 213명과 여자 11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

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이다. K정보산업학교의 특성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중·장기(14 - 18개월)처우과정의 소년을 수용, 보호하며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특성화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성순화, 심신의 보호 지도를 통하여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완전한 사회정착을 실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범지에 노출된 비행청소년들의 성경험실태를 파악하고 성지식과 성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조사내용으로는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이 원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경험한 성행위, 피임, 성병의 기왕력, 자위행위, 본드 흡입, 약물복용, 임신경험, 성적충동 및 성지식과 성태도 등이었다.

3. 연구도구

성태도 설문지는 유길한(1997)이 만든 성태도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13문항(5점 척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찬성 1점에서 매우 반대 5점까지로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설문지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66이었다.

성지식 측정설문지는 이명화(1998)가 개발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0, ×로 응답하여 총 2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설문지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62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1.0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χ^2 -test, t-test를 구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17.7세이며, 범위는 15세- 21세였다. 연령분포는 49.6%가 18-19세였고, 16-17세가 35.3%이었다. 성별은 대다수가 남자로 95.1%인데 반해 여자는 4.9%에 불과하였다. 교육정도별 현황은 중학교 중퇴가 45.5%, 고등학교 중퇴가 25.5% 순이었는데, 이는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64.3%로 매우 낮은 학력을 보였다.

종교는 기독교가 43.8%로 가장 높았고, 무종교 23.2%, 불교 17.0%, 천주교 14.7% 순이었다. 출신지역 현황은 중소도시 36.6%, 농어촌 34.4%, 대도시 29.0% 순으로 비교적 고루 분포되었다. 가족사항은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38.4%, 편모, 편부는 27.2%,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따로 사는 경우는 29.5%, 모두 돌아가신 경우는 4.9%이었다(표 1).

2. 대상자들이 원하는 성교육 내용

대상자들이 원하는 성교육 내용은 임신, 출산, 유산이 1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성교제 13.9%, 성병/에이즈 13.1%, 성충동과 행위, 경향 10.7%, 남녀의 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10.4% 순이었다(표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빈도	(%)
연령(세)	평균 ± 표준편차	17.7 ± 1.3	
	15	14	(6.2)
	16 - 17	79	(35.3)
	18 - 19	111	(49.6)
	20≤	20	(8.9)
성별			
	남자	213	(95.1)
	여자	11	(4.9)
교육정도			
	초등학교 중퇴	10	(4.5)
	초등학교 졸업	10	(4.5)
	중학교 중퇴	102	(45.5)
	중학교 졸업	22	(9.8)
	고등학교 중퇴	57	(25.5)
	고등학교 졸업	22	(9.8)
	무응답	1	(0.4)
종교			
	없음	52	(23.2)
	기독교	98	(43.8)
	천주교	33	(14.7)
	불교	38	(17.0)
	기타	3	(1.3)
출신지역			
	대도시	65	(29.0)
	중소도시	82	(36.6)
	농어촌	77	(34.4)
가족사항			
	부모가 함께 동거	86	(38.4)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	66	(29.5)
	어머니만 생존	29	(12.9)
	아버지만 생존	32	(14.3)
	두분 모두 돌아가셨다	11	(4.9)
총 계		224	(100.0)

<표 2> 대상자들이 원하는 성교육 내용 (복수 응답)

교육내용	빈도(%)
임신, 출산, 유산	107(17.4)
이성교제	86(13.9)
성병/에이즈	81(13.1)
성충동과 행위, 경향	66(10.7)
남녀의 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64(10.4)
성문화, 성개념	48(7.8)
자위행위	44(7.1)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38(6.2)
동성연애	36(5.8)
피임방법	30(4.9)
기타	6(1.0)
무응답	10(1.6)
총계	616(100.0)

3. 대상자들의 성경험 정도

대상자가 이성과의 성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79.6%로 매우 높았고, 없는 경우는 20.4%이었다. 피임을 한 적이 있는 경우는 10.0%이고, 하지 않은 경우는 90.0%이었다. 성병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는 23.1%나 되었으며, 자위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86.5%이었다. 본드를 흡입한 적이 있는 경우도 23.1%,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9.5%로 약물복용보다는 본드 흡입이 더 많았다(표 3-1).

성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임신을 한(시킨) 적이 있는 경우도 27.6%이었고, 성적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대상자가 70.0%이었다.

일반적인 특성과 성경험 관련 내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나이와 피임 경험($\chi^2=5.056, P=.025$)과 나이와 임신경험($\chi^2=4.982, p=.027$)이었다(표 3-2).

<표 3-1> 대상자의 성경험 내용

내 용	있다 빈도(%)	없다 빈도(%)	총계
자위행위를 한 적이 있다.	193(86.5)	30(13.5)	223(100.0)
이성과의 성행위를 한 적이 있다.	176(79.6)	45(20.4)	221(100.0)
성적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	157(70.7)	65(29.3)	222(100.0)
임신을 한(시킨) 적이 있다.	61(27.6)	160(72.4)	221(100.0)
성병을 앓은 적이 있다.	52(23.2)	170(76.9)	221(100.0)
본드를 흡입한 적이 있다.	51(23.1)	170(76.9)	221(100.0)
피임을 한 적이 있다.	22(10.0)	199(90.0)	221(100.0)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다.	21(9.5)	200(90.5)	221(100.0)

* 무응답 제외

<표 3-2> 연령별 피임과 임신경험의 차이

구분	피임경험		x ²	p
	있다 빈도(%)	없다 빈도(%)		
연령(세)				
≥16	1(4.5)	41(20.6)	5.066	.025*
17 - 19	17(77.3)	142(71.4)		
20≤	4(18.2)	16(8.0)		

구분	임신경험		x ²	p
	있다 빈도(%)	없다 빈도(%)		
나이				
16세 이하	6(9.8)	37(23.1)	4.982	.027*
17 - 19세	49(80.3)	110(68.8)		
20세 이상	6(9.8)	13(8.1)		

* p<0.05

4. 대상자의 성태도 수준

대상자들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항목은 '결혼전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에는 유산을 해도 된다'로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86점이었다. '여성들은 결혼 전에 혼전 성경험을 가져도 된다' 3.33점, '결혼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

다' 3.31점이었으며, 가장 긍정적인 항목은 '우리 나라에서 성경험을 갖지 않은 미혼남성은 거의 없다'로 2.30점이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에 상관없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2.32점, '우리 나라에서 성경험을 갖지 않은 미혼여성은 거의 없다' 는2.39점 순이었다(표 4).

<표 4> 대상자의 성태도

질 문 내 용	평균평점 ± 표준편차
결혼전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에는 유산을 해도 된다.	3.86 ± 3.90
여성들은 결혼 전에 혼전 성경험을 가져도 된다	3.33 ± 1.07
결혼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다.	3.31 ± 2.74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의 성행위에서도 만일 임신이 된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	3.22 ± 1.14
'남자들은 전부 늑대' 는 말에 동의한다.	3.16 ± 1.21
음란물이나 포르노잡지를 즐겨본다.	3.09 ± .92
이성교제시 임신을 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	2.91 ± 2.31
자기의 성경험을 지금의 남자(여자)친구에게 말 할 수 있다.	2.88 ± 1.12
'여자들은 전부 여우' 라는 말에 동의한다.	2.80 ± 1.14
남성들은 결혼 전에 혼전 성경험을 가져도 된다	2.78 ± 1.08
우리 나라에서 성경험을 갖지 않은 미혼여성은 거의 없다.	2.39 ± 1.07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에 상관없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2.32 ± 0.98
우리 나라에서 성경험을 갖지 않은 미혼남성은 거의 없다.	2.30 ± .99
총 평균 평점(5점 만점) (총 계)	2.95 ± .62 (38.32 ± 8.10)

5. 대상자의 성지식 수준

'자위행위는 지나치게 하지 않는 한 건강에 해롭지는 않다'가 0.80점으로 가장 높았다. '생리 중에도 임신은 가능하다'가 0.68점,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강간을 거부하면서도 성적쾌감을 느낀다'가 0.61점 순이었다. '보통 남자들은 사춘기 이전에는 발기가 되지 않는다'가 0.18점으로 가장 낮게 낮았다. '사춘기가 지나서도 음모가 나지 않는 여자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다'가 0.16

<표 5> 대상자의 성지식

내 용	평균점수
자위행위는 지나치게 하지 않는 한 건강에 해롭지는 않다	0.80
생리 중에도 임신은 가능하다	0.68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강간을 거부하면서도 성적쾌감을 느낀다	0.61
남자의 성기 크기는 여자의 성적쾌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0.57
보통 사람들의 성적인 행위는 본능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는다	0.52
성교후 질을 씻어 내는 방법은 효과적인 피임방법이다	0.45
성병은 반드시 성교를 통해서만 감염될 수 있다	0.42
정자는 자궁내에서 약 48시간(이틀)동안 살 수 있다	0.40
매독은 치료를 받아도 재발될 수 있다	0.38
초경후 얼마동안 월경이 없거나 불규칙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0.37
성폭력은 야한 옷을 입었거나 예쁜 여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	0.34
가장 안전한 피임 방법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다	0.34
남자의 성충동은 본인의 의지로 조절될 수 있다	0.29
초경과 동정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임신은 가능하게 된다	0.29
AIDS는 동성연애자만 걸리는 병이다	0.29
피임이란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0.25
성의 성숙표시로 여자는 월경을 남자는 사정현상이 나타난다	0.20
보통 남자들은 사춘기이전에는 발기가 되지 않는다	0.18
사춘기가 지나서도 음모가 나지 않는 여자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다	0.16
단 한번의 성행위로 임신이 되기도 한다	0.14
총 평균 평점(1점 만점) (총 계)	0.38(7.65)

점, '단 한번의 성행위로 임신이 되기도 한다'는 0.14점이었다(표 5).

6. 성경험에 따른 성태도와 성지식 수준

성태도는 성행위 경험이 있는 경우가 37.65점, 없는 경우가 41.44점($t=-2.919$, $p<0.01$), 성지식은 성경험이 있는 경우 7.43점, 없는 경우 8.44점($t=-1.833$, $p<0.05$)으로 각각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성행위 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긍정적인 성태도를 보였으나, 성지식은 더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피임경험이 있는 경우 성태도 수준은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성지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38$, $p<0.05$).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 성태도 수준($p<0.05$)과 성지식 수준($p<0.01$)은 유의성이 있었다. 이는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 성태도가 더 긍정적이었으나, 성지식은 더 낮은 것을 의미한다.

성적충동 경험이 있는 경우 성태도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성지식($p<0.05$)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성적충동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더 성지식이 낮았다(표 6).

<표 6> 성경험에 따른 성태도 및 성지식 수준의 차이

구분	성행위 경험		t	p
	있다 평균 ± 표준편차	없다 평균 ± 표준편차		
성태도	37.65 ± 8.01	41.44 ± 7.71	-2.919	.005*
성지식	7.43 ± 2.87	8.44 ± 4.73	-1.833	.034*
구분	피임 경험		t	p
	있다 평균 ± 표준편차	없다 평균 ± 표준편차		
성태도	35.82 ± 9.07	38.71 ± 7.94	-1.435	.082
성지식	6.00 ± 3.84	7.82 ± 3.25	-2.138	.021*
구분	임신 경험		t	p
	있다 평균 ± 표준편차	없다 평균 ± 표준편차		
성태도	36.69 ± 9.06	39.01 ± 7.70	-1.174	.039*
성지식	6.54 ± 2.88	8.08 ± 3.43	-3.352	.001**
구분	성적충동 경험		t	p
	있다 평균 ± 표준편차	없다 평균 ± 표준편차		
성태도	37.68 ± 7.58	39.78 ± 9.09	-1.644	.051
성지식	7.29 ± 2.80	8.37 ± 3.96	-1.994	.024*

* $p<0.05$, ** $P<0.01$

IV. 고찰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자아존중감(self-esteem)이 낮아지고, 부정적 자아개념(self-concept)이 형성되어 갈등상황에서 부적절하게 대처하여 문제행동과 비행은 저지르게 된다. 최근 청소년들의 비행은 급격히 증가되고, 흉폭해지며, 저연령화 되고, 보편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성인범죄로 이전되고 있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가 날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위해 소년일시보호소(분류심사원)와 소년원이 있으며,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6). 비행청소년 교정제도의 목적은 발달단계에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기 보다 교정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최옥채, 1998). 본 연구는 교정기간 동안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들 비행청소년이 사회에서 경험한 성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성지식 수준과 성태도를 확인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17.7세이며 가장 많은 연령분포는 18-19세로 111명(49.6%)이었는데, 이는 1962년부터 1997년까지 발행된 청소년 백서를 분석한 이경희와 박청자(2000)의 연구결과에서 다른 연령대는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18-19세군은 1993년 43.2%, 1997년 33.9%에 비해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였다. 청소년 범죄의 성별현황은 대부분 남자로 213명

(95.1%)인데 반해 여자는 11명(4.9%)으로 1997년 남자가 91.6%, 여자가 8.4%(이경희와 박청자, 2000)에 비교했을 때 여자의 범죄율이 더 높아졌다. 학력정도는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64.3%로 매우 낮은 학력이었으며, 1997년 중졸 이하가 30.5%인데 비해 매우 더욱 학력저하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의 비행이 점점 저연령화와 낮은 학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가족사항은 부모가 함께 살고있는 경우가 86명(38.4%),인데 비해 부모가 별거 혹은 이혼, 편모, 편부,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가 137명(61.6%)으로 매우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1997년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77.9%(이경희와 박청자, 2000)에 비해 낮았는데, IMF이후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는 가정의 붕괴 혹은 해체위기 속에서 청소년이 겪는 정서적 불안감과 주변인의 관심부족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비행 혹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비행 청소년들이 원하는 성교육 내용 중 임신, 출산, 유산(17.4%), 이성교제(13.9%), 성병/에이즈(13.1%) 등에 비해 성충동과 행위, 경향(10.7%), 남녀의 생식기의 구조와 기능(10.4%)은 약간 더 낮았다. 이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유정 등(1996)의 조사에서 성적사고와 예방(57.7%), 이성교제(56.3%), 남녀의 신체발달(52.5%)이 매우 높은 반면, 중2, 3학년에서는 순결 및 성적책임, 가족 및 결혼, 성관련 주의할 점등이 가장 높았다. 성교육의 내용은 대상자의 성장발달단계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이 경험한 성관련 행위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항목은 자위행위(86.5%),

이성과의 성행위(79.6%), 성적충동(70.7%), 임신(27.6%), 성병(23.2%) 등이었다. 십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장순복 등, 2001)에서는 성경험(4.5%), 임신경험(0.5%), 성병(0.8%), 피임경험(3.4%) 등인 반면, 남녀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남명희, 1999)에서 남학생의 경험은 자위행위(81.2%), 성교(40.0%), 피임(7.8%), 성병(3.9%), 임신(12.3%)이었고, 여학생의 경험은 자위행위(11.4%), 성교(13.3%), 피임(2.9%), 성병(1.9%), 임신(6.8%) 등이었다. 이는 비행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더 성에 노출되어있고, 그 결과 임신이나 성병발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내용도 단순한 남녀의 신체구조나 생리현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전달이나 순결강조 교육이 아니라 성차별적이고 퇴폐적인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 대응 능력과 성에 노출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비행 청소년의 성태도는 부정적인 면이 더 높았으며, 그 중 가장 부정적인 항목은 '결혼전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에는 유산을 해도 된다'(3.86점), '여성들은 결혼 전 혼전 성경험을 가져도 된다'(3.33점), '결혼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다'(3.31점)이었고, 가장 긍정적인 항목은 '우리 나라에서 성경험이 없는 미혼남성은 거의 없다'(2.30점),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에 상관없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2.32점), '우리 나라에서 성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은 거의 없다'(2.39점)순이었다. 성태도는 일반적으로 성별의 차이, 실업계와 인문계 학교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무식 등, 2000). 이와 같은 차이는 인간의 성태도는 사회구조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배

경 속에서 가족이나 형제, 또래 집단과 대중매체 등에 의해 전달받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관념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가 상호역동적으로 관계하여 성적인 욕구를 분출하면서 표현되어진다(심희정, 1999)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범죄집단에 노출된 비행청소년의 경우는 조기 성경험과 위해환경의 노출경험으로 부정적인 성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자들의 성지식 정도는 비교적 '자위행위는 지나치게 하지 않는 한 건강에 해롭지는 않다', '생리 중에도 임신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강간을 거부하면서도 성적쾌감을 느낀다' 등과 같은 항목은 '보통 남자들은 사춘기 이전에는 발기가 되지 않는다', '사춘기가 지나서도 음모가 나지 않는 여자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다', '단 한번의 성행위로 임신이 되기도 한다' 등의 항목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남명희(1999)의 연구에서는 성생리, 생식생리, 성병, 피임 순으로 지식점수가 높았으며, 심희정(1999)의 연구에서는 성적개념의 정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고, 당면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식수준은 높았다. 남녀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식요구를 연구한 결과(이은주, 2000)에서 성적 충동, 행위 및 성향과 생식기관의 해부 생리, 재생산 등에 대한 성지식 요구도가 높았으며, 자신의 생물학적 성으로 경험하는 현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은 인간의 성을 생리적 현상으로서의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반면, 이성애와 연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이중적 관점을 갖는 모순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성행위 경험이 있는 경우 성태도

는 긍정적이었으나, 성지식은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낮은 지식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들 비행 청소년들이 성적욕구에 대한 표현이 본능과 충동에 의하지 않고,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충동적 상황에서도 적절한 성적행동 양상을 표현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범죄에 노출된 비행청소년들의 성실태를 파악하고 성지식과 성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G시에 소재하며 비행청소년을 교육하는 국가기관인 K정보산업학교에 입학한 전교생 224명(남자 213명과 여자 11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이다. 조사된 내용은 SPSS/win 11.0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χ^2 -test, t-test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나이는 17.7세이며, 성별은 대다수가 남자(95.1%)이었으며, 교육정도는 중학교 중퇴가 102명(45.5%), 고등학교 중퇴가 57명(25.4%) 순이었으며, 가족사항은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38.4%, 결손가정이 61.6%이었다.
2. 대상자들이 원하는 성교육 내용은 임신, 출산, 유산(17.4%), 이성교제(13.9%), 성병/에이즈(13.1%), 성충동과 행위, 경향(10.7%) 순이었다.

3. 대상자들이 경험한 성관련 내용은 자위행위(86.5%), 성행위(79.6%), 성적충동(70.7%), 임신(27.6%) 순이었고, 나이와 피임 경험($p<0.05$)과 나이와 임신경험($p<0.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대상자의 성태도는 최소 13점, 최대 65점으로 평균 38.32점이었으며, 문항별 평균은 2.95점이었다.
5. 대상자의 성지식은 최소 0점, 최대 20점으로 평균 7.65점이었으며, 문항별 평균은 .38점이었다.
6. 성경험에 따른 성태도와 성지식의 차이는 성태도와 성경험($p<0.05$), 성지식과 성경험($p<0.05$), 성지식과 피임($p<0.05$), 성태도와 임신($p<0.05$), 성지식과 임신($p<0.01$), 성지식과 성적충동($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하고자 한다.

1. 비행청소년의 올바른 성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정 프로그램에 성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 및 위해환경요인과 성경험, 성태도 및 성지식과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3. 이연구의 결과는 일지역의 비행청소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교육기관에서도 반복조사할 필요가 있다.<접수일자: 4월 1일, 게재확정일자: 6월 21일>

참고문헌

- 김상원, 이명숙. 중학생의 성의식 조사 및 성교육자료개발 연구. 청소년보호연구보고서, 2000-38.
- 남명희.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격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99;10(1):239-250.
-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청소년백서, 1998.
-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청소년백서, 2002.
- 박성수. 비행청소년의 교육: 심리학적 미래. 「형사정책연구」. 1991:2.
- 박영주, 구병삼, 홍명호, 김탁, 신재철, 이찬, 문준, 오민정. 한국 10대 여성의 임신, 인공유산 및 출산경험 실태. 대한간호학회지, 1998;28(3):573-582.
- 심희정. 청소년 성의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유길한.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 교육대학생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 학생지도연구 제23집, 1997;91-124.
- 이경희, 박청자. 한국 청소년 비행의 동향. 계명간호과학. 2000;4(1):55-68.
- 이명화. 음란매체 접촉에 따른 성갈등에 성태도와 지식이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무식, 김은영, 천병철, 이석구, 전경희, 최은주. 일부 고등학생에서 성적 활동의 위험요인 분석.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00;4(2):199-217.
- 이은정. 고교생과 고교생 학부모의 성지식, 태도, 성교육 요구시기에 관한 조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0.
- 이윤선, 이근후. 청소년기 성태도 형성과 그 중요성에 관한 통계적 관찰. 신경정신의학, 1987;26(1호).
- 이인규. 일부 도시지역 남녀 고등학교 여학생의 성에 관한 태도 및 지식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1984;43(7).
- 이찬, 선우태원, 구병삼. 한국 청소년기 여성의 성격경험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산부회지, 1999;42(2):307-319.
- 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영, 박영주. 십대 여학생의 임신실태 및 예방대책. 서울: 십대 여학생보호위원회. 2000.
- 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영, 박영주, 강현철, 이선경. 십대 여학생의 성형태와 성격경험 관련요인. 대한간호학회지, 2001;31(5):921-931.
- 차은석.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태도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8.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폭력실태조사, 2001
- 최순희.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성교육 요구도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90
- 최옥채. 교정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8.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문제론, 서원, 1996.
- 한유정, 박인혜, 윤현숙. 남녀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성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996;9(1):99-108.
- 홍강의. 청소년기의 성문제. 대한의사협회지, 1996;39(12):1514-1518.
- 현지은.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심리극 프로그램 연구.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 Jessor. Adolescent Development and Behavioral Health. 1984
- Mackey. The Penguin Atlas of Human Sexual Behavior. Penguin Reference, 2000:93-103.

<ABSTRACT>

A Survey of Sexual Behavior, Attitude and Knowledge of Juvenile Delinquence Adolescents

Young Sook Lee* · Mi Jung Shim** · Ran Hee Hwang***

** Department of Nursing, Medical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Health College,*

**** Department of Nursing, Kwang Ju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f the sexual behavior, attitude and knowledge of delinquency adolescents.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 from 224 delinquency adolescents of the juvenile protection and education organizations in Gwangju city from June 18 to 21, 2002 in Ko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concern of subjects on sexual education was pregnancy, delivery and miscarriage(17.4%), date with boy-girl friends(13.9%)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AIDS(13.1%). The experiences of sexual behavior was masturbation(86.5%), sexual intercourse(79.6%), sexual desire(70.0%) and pregnancy(27.6%).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ge and contraception($p<0.05$), age and pregnancy($p<0.05$). The average score for sex attitude was 38.32. The average score for sex knowledge was 7.65.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ex attitude and sexual intercourse($p<0.01$), sex knowledge and intercourse($p<0.05$), sex knowledge and contraception($p<0.05$), sex attitude and pregnancy ($p<0.05$), sex knowledge and sexual desire($p<0.05$).

In conclusion, juvenile delinquency adolescents should be educated on sexuality continuously to express there sexual behavior patterns with the right morality and knowledge in any sexual arousal situation.

Key words: Delinquency adolescents, Sexual behavior, Sexual attitude, Sexual knowledge